

신안군, “아이 키우는 엄마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

박우량 신안군수, 육아 중인 여직원 90여 명과 간담회 개최해
직원들 육아시간 사용 눈치 주지 않기 등 건의해 이야기 나눠

신안군은 지난 15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 중인 여직원 90여 명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 마음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육아 중인 여직원들 각자의 경험을 토로(吐露)하는 장이 되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애로사항도 함께 건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공감하며 손꼽았던 애로사항으로는 임신 중 힘들거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가뉘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아이의 등원, 등교 후 다급한 출근으로 자신의 아침을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딸

여지기 싫어하는 아이들과의 매번 반복되는 이별에 가슴 아픈 눈물 사연 등을 여과 없이 말하며,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파했다. 이어진 건의 사항으로는 육아 시간 사용 눈치 주지 않기, 임신부 주차장 설치, 아이 등원으로 출근 시간 늦춰주기, 축제 지원 근무 시간 배려, 섬 발령 시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한정 등을 건의했다. 중간중간 답변을 이어가던 박우량 군수는 육아시간 눈치 주지 않게 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에게 육아 어려움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통해 마음 편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참석자들의 큰 환호를 받기도 했다.

또한, 기존 5세까지던 육아시간을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을 환영하면서,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우량 군수는 먹먹해지는 가슴으로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 더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다른 어떤 곳보다 어려운 여건을 가진 우리 지역인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오늘 들려준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과



제도 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적극 검토하겠다.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몫이 아니고 소속된 조직도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남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우리 마을에 행복이 온다”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부릉~’

민·관 협력해 진료·취업상담 등 자원봉사 본격 시행



나주시가 최근 금천면 월촌마을에서 2024년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의 첫 출발을 알렸다.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원봉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봉사단은 총 4가지 분야(보건, 생활, 미용, 기타) 20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료부터 치매검사, 안전점검, 조명설치, 칼갈이, 미용, 손마사지, 장수사진, 취업상담, 가족상담까지 일상 속 다양한 분

야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진행하는 ‘스포츠테이핑’, 나주시 가족센터의 ‘간단수선’ 등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금천면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김인자 과장은 “이번 이동봉사단 서비스가 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더 편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율령대 나주시장은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수고해주시는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녕과 정겨운 나주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해남군이 은둔형 외톨이 주민의 사회복귀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올해 첫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으로, 사회와 단절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적인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둔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은둔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부터 관내 64세 이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8명의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를 위기가구와 1대 1 매칭하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과 소통을 시작으로, 은둔 단계별·형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은둔형 외톨이 특성과 은둔생활, 지원 프로그램 육구 등 14개 항목으로 성별, 나이, 은둔기간, 은둔의 계기, 희망하는 외부 소통방식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은둔형 위기가구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지속적인 발굴에 힘쓰고, 발굴 즉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견시 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61-530-5908)으로 문의하기를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장성군
Jangseong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